

Hyundai Bulkyo 8th



창간 8주년 특별기획 I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의 장래

무궁무진한 소재 활용 미래佛敎 희망을 연다

정보사회의 핵심은 콘텐츠다. 콘텐츠의 경쟁력이 정보사회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각 분야의 콘텐츠 개발·보급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콘텐츠 산업도 자동차, 반도체 산업과 비교해도 그 규모면에서 뒤질게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와 창의력이다. 1,7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불교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무한 창작이 가능한 시나리오, 캐릭터 등이 풍부해 엄청난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요즘 불교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만 가고 있다. 굳이 산업적 측면으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불교를 알리는 데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같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 불교문화콘텐츠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분

야에 대한 불자들의 이해의 폭도 넓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화콘텐츠는 사람의 창의력과 감수성 등 지식을 이용해 만든 상품이다. 즉,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출판, 캐릭터 등 다양한 분야의 순수 창작물이 문화콘텐츠에 해당된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언뜻, 만

(만자, 코끼리, 범룡마크 등을 주로 이미지화해 의류, 악세서리 등에 약간씩 사용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종단을 비롯해 개별사찰, 수행단체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이미지나 캐릭터를 개발해 포교효과를 높이고 있다.

조계종은 총무원 산하 행사기획단을 중심으로 지난 96년부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아기부처님 캐릭터를 개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한 캐릭터는 아기부처님, 동자승, 꽃비취장 등 120여 점 정도. 지금은 불교행사 현수막, 포스터, 신도카드 등에까지 캐릭터가 활용되어 불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고, 타종교와도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총무원 전산실에서도 불교종합정보센터인 달마넷을 통해 10월경 플래시 애니메이션 공모를 실시, 불교문화콘텐츠 지원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행사기획단 박상희 간사는 "불교가 그동안 옛날 것으로만 인식되었는데 캐릭터 개발 이후 주위로부터 불교가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며

불교계에서는 취지로 개설된 불교 웹카드가 네티즌 불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 불교미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통문양을 정리해 CD로 무료 배포했고, 외국인들을 위해 영문 불교미술전문사이트 코바(<http://www.buddhapia.com/eng/koba/index.html>)를 개설, 인터넷 상으로 불교미술품과 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조계사, 운봉선 등 일부 사찰과 수행단체에서도 로고와 심벌마크를 개발해 문신나 봉투, 사보 등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불교문화콘텐츠는 캐릭터가 중심을 이룬다. 게임,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음악 등 영상세대들이 좋아하는 영역에는 아직까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저변이 약하다는 이야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님들의 정보화 인식, 즉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다면 투자금액의 수십수백배 이상의 포교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청소년들은 영상세대다. 불교계에서 청소년들의 구미에

창작가능 시나리오·캐릭터 등 큰 잠재력
종단·사찰·수행단체 상징물 포교에 효과

게임·애니메이션 부문 아직 미미한 수준
영상세대 걸맞는 질높은 내용 개발돼야

"현대적 감각으로 만들어진 캐릭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는 등 불교포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불교전각종은 지난 95년부터 시각 이미지 통합작업을 실시해 심벌마크를 비롯 전각종체 및 '깨끗이' 캐릭터 개발을 완료하고 바인드, 노트 휴지까지 등 해마다 포교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올 8월 불교문화강습회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불교문화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불교문화 대중화를 통해 현대화된 종교 이미지까지 창출하고 있다.

전각종은 또 영상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해 종단내에 영상자료팀을 구성하고 현재 영상소스 수집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사비로)나청소년협회에 영상관련 청소년 동아리 결성을 추진하고 인터넷 방송국도 추진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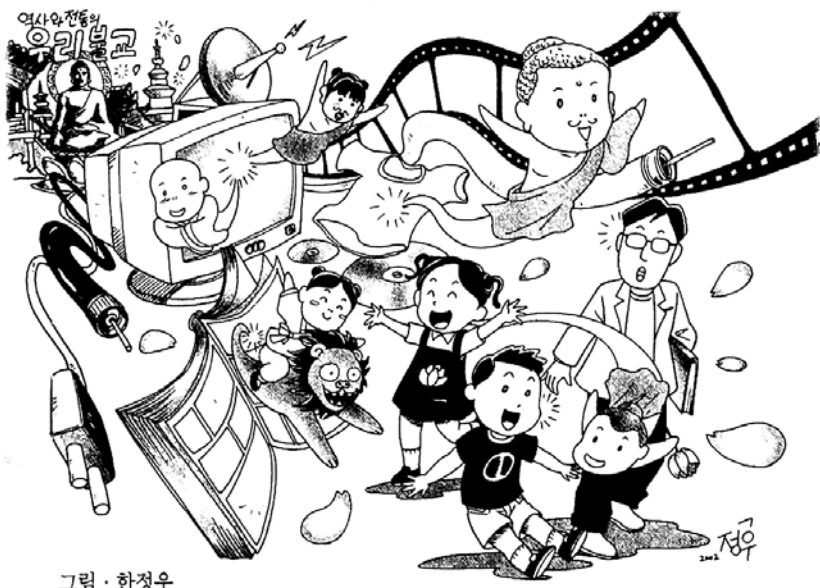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사에서는 이미 2000년도부터 부다피야 홈페이지(www.buddhapia.com)에서 불교 웹카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연말연시에 연하장을 보내듯 부처님 오신날을

맞는 질높은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불교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종단이나 사찰에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힘들다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국가 공공 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우리문화원형 콘텐츠디지탈화 공도 등을 활용해 볼 만하다.

불교문화콘텐츠 개발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부족. 정부는 2005년까지 문화콘텐츠 개발 전문 인력 4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불교계도 종립학교 등에 문화콘텐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호남대 인터넷미디어학부 정석규 교수는 "종단차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교적 돈이 적게 드는 플래시 애니메이션 경연대회와 같은 행사를 자주 개최한다면 불교문화 콘텐츠의 저변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이같은 불교문화콘텐츠는 어린시절부터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고 불교사상을 일상생활 화할 수 있어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불자적 심성을 길러준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pia.com



그림·한정우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 설립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우리문화 원형과 창의성을 바탕으로한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서병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은 한국 과학원 선임연구원 출신으로 삼성 전자 미디어콘텐츠센터장(전무) 등을 지낸 IT·문화콘텐츠산업 전문가다. 서병문 원장에게 한국문화 콘텐츠진흥원의 역할과 불교문화 콘텐츠에 대한 고견을 들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소개해 주십시오.

"진흥원은 2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간부문에서의 역할입니다.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애니메이션, 음반, 캐릭터, 출판문화, 게임 등의 콘텐츠 제작업체 중 우수한 업체를 발굴하여 기술, 자금, 인력지원 등 중소 콘텐츠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획, 제작, 공급, 마케팅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공적부문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거나 민간투자가 어려운 콘텐츠를 개

"세계 5대 문화콘텐츠國 목표"

인터뷰 서병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

발·지원하고, 문화콘텐츠산업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문화콘텐츠를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요?

"일본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월령공주' 등의 명작들은 일본의 문화가 멋지게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콘텐츠의 특성에 맞도록 자국의 문화 특징을 잘 가공해서 넣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최근들어 언론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용어인 CT(Culture Technology)란 문화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데 필요한 지적 노하우와 물리적 기술을 의미합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문화콘텐츠'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정부는 CT를 정보기술(IT)등과 더불어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선정

지원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불교문화를 콘텐츠화 하는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화원형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예술, 생활과 관련된 각종 1차 자료를 말하는데, 이들 자료를 디지털화할 경우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전자책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CT'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선정 독창성·차별화로 세계시장 진출

기에 불교관련 소재는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학자와 콘텐츠 개발자들은 우리의 불교문화를 활용한 콘텐츠사업과 기술개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세계화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형콘텐츠화 사업공고를 했을 때 총 22개의 선정작 중 3개(13%)



가 불교관련 문화원형소재였다는 것을 봤을 때 불교가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왔고 역사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문화를 콘텐츠화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원형에 기초를 하되 '차별성'이라는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개발된 콘텐츠가 관련 기반산업의 콘텐츠 창작역량 활성화와 세계적인 문화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야기를 기술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

다. 세계적인 독창성과 차별화 전략만이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두식 기자

다. 세계적인 독창성과 차별화 전략만이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콘텐츠 지원을 위한 진흥원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창의적 문화콘텐츠산업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과 수출산업화를 통한 세계 5대 문화콘텐츠 생산국 진입을 목표로 세우고 △해외시장 진출 최우선화 △문화콘텐츠 창작역량 강화 △산업 인프라 발전 △지역별 △지방문화산업 활성화 △지원체계 정립 등의 5대 중점 추진 전략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1% 내외의 문화콘텐츠산업 세계시장 점유율을 5%대로 끌어 올리기 위해 '문화콘텐츠수출 대상'을 신설하고 우수업체를 선정 시상할 예정입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하며 우리 문화원형 중심의 경쟁력 있는 창작콘텐츠 제작 및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한국문화콘텐츠리소스센터(KCRC : Korea Contents Resource Center)를 구축·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두식 기자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전사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주)수신토종오 대표 / 성광수 씨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최근 중국산오가피를 북한산이나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적발된 업체들이 물의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는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오직 국내에서 재배한 국산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국내최대재배자 성광수씨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직접 농장견학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우리 선수들의 지질줄 모르는 체력!

선진축구의 파워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탐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에서 수신토종오가피가 함께 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이 우리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 선수들이 먹다며 선전하는 오가피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국가대표팀이 먹은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사진 확인하셨습니다가?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100% 토종오가피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없다면 축구국가대표팀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문의전화 (02)446-4422

불교와 문화

2002년 9·10월호

불교정립/ 무엇이 불교적인가
- 과잉 관리이본만을 불교 원전이라 할 수 있는가
- 불교 근본주의자의 잘못된 경전관과 그 폐해

영화 속에서 만나는 불교
- 아이스 에이지(ICE AGE)
- 재미있고 유쾌한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불교적 가르침을 찾는다

특별기고 - 지난 호 특집 '외국인 스님의 국내 정착 문제'에 대한 반론
- '외국인 스님들이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부터 배워야 한다'

내가 만난 불교문화
- 전통성 전생의 뜻을 수 없는 유적 조사 - 봉화 복지리 석반가사유상과 마애여래상

칼럼하로
- 사찰의 또 다른 뜻, 벽화를 찾아서 - 안주 위봉사 보광명전 벽화

특별기획 시리즈 / '생명' ① - 불교에서는 생명(死罪)을 어떻게 보는가
- 과연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사형에 대한 기원, 반, 반의를 넘어 생명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과 함께 불교에서 보는 생명(死罪)에 대해 조명한다.

· 사형제도 왜 논란이 되는가
· 기독교 입장에서 본 사형
· 불교에서 보는 사형

탐방 / 한·몽불교문화교류협회를 다녀와서
- 몽골 불교의 오늘 - '몽골에는 불교는 있지만 부처님 말씀이 없다'

성남시의 문화재조사 - 경주 석굴암
· '불국사나 천화(天花)' 2



각월간 불교와 문화 전파: (02)719-2606, 팩스: (02)719-5052 인터넷 홈페이지: www.kbpf.org ▶ 정가 7,000원, 1년 6호간 구독료 42,000원